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고금리 기조 지속될 필요
 - 미국 주간 고용지표, 노동시장 냉각 시사. 4월 수입물가는 상승세 강화
 - ECB 부총재, 향후 금리경로는 불확실. 여타 위원들은 6월 금리인하 예상
 - 일본 1/4분기 GDP, 전기비 0.5% 감소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이후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하락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부진한 기업실적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4월 수입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며 강세 마감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조기 금리인하 산증론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4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47.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49.8원, 0.35% 상승). 한국 CDS 하락

		5/16일	5/15일	전일대비			5/16일	5/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297.1	5,308.2	-0.21%	국채 금리 10y	미국	4.38%	4.34%	+4bp
	유럽	523.62	524.71	-0.21%		독일	2.46%	2.42%	+4bp
	중국	3,122.4	3,119.9	+0.08%		영국	4.08%	4.07%	+1bp
	일본	38,920	38,386	+1.39%	CDS 5y	한국	34bp	35bp	-1bp
	한국	2,753.0	2,730.3	+0.83%		중국	59bp	62bp	-3bp
환율	달러지수	104.50	104.35	+0.15%	위험 지표	EMBI+	-	327	-
	유로화	1.0867	1.0884	-0.16%		VIX	12.42	12.45	-0.24%
	엔화	155.39	154.88	-0.33%		WTI유	79.23	78.63	+0.76%
	위안화	7.2214	7.2190	-0.03%	원자재	구리	489.2	497.0	-1.56%
	원화	1,345.0	1,369.1	+1.79%		금	2,376.9	2,386.0	-0.3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고금리 기조 지속될 필요

-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에 현행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첨언
-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둔화 속도 역시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 역시 2%라는 인플레이션(연율) 목표 달성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아울러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둔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CME의 FedWatch Tool은 금년 2회의 금리인하(9월과 12월, 각 0.25%p)를 예상했고, 내년의 경우 3월에 첫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주간 고용지표, 노동시장 냉각 시사. 4월 수입물가는 상승세 강화

- 5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2만건로 전주 대비 1만건 감소. 이번 결과는 노동수요가 냉각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노동시장 수급은 여전히 팽팽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4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보합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월(0.1%) 및 예상치(0.1%) 대비 낮은 수준
- 4월 수입물가의 월간 상승률은 0.9%로 전월(0.6%)에 비해 오름세 강화. 이는 25개월 만의 최고치로 에너지 제품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 4월 주택착공(연환산)은 전월 대비 늘었고(128.7만건→136.0만건), 건설허가(연환산)는 전월 대비 감소(146.7만건→144.0만건)

■ 이스라엘, 가자지구 작전 강화 위해 추가 병력 투입. 하마스는 게릴라전 지속

- 갈란트 국방장관은 라파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강도를 높이고, 추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 하지만 하마스는 게릴라 전술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단기간 내에 전쟁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 ECB 부총재, 향후 금리경로는 불확실. 여타 위원들은 6월 금리인하를 예상

- 권도스 부총재는 역내 임금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금리경로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 갈로 위원은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 피력.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인 데코스 위원 역시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언급

■ ECB, 선거와 지정학적 갈등 등이 금융안정에 위험. 상업용 부동산도 경계 요소

-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선거와 지정학적 갈등 등이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자극하여 은행권에서 관련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

■ 영란은행 그린 위원, 인플레이션 완화 근거를 좀 더 확인할 필요

-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강력한 노동시장 등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1/4분기에 대규모 미국채 매각 지속. 자산 다각화 의지가 반영

- 1/4분기에 533억달러라는 대규모의 미국 국채 및 기관채를 매각. 이는 최근 무역갈등 등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달러화 표시 채권 축소를 통해 보유자산 다각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 일본 1/4분기 GDP, 전기비 0.5% 감소.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기인

- 1/4분기 GDP는 전기비 0.5% 줄었고, 연율 환산 시 2.0% 감소. GDP가 전기비 감소한 것은 작년 3/4분기 이후 처음. 이번 결과는 민간 소비(-0.7%), 설비투자(-0.8%), 수출(-5.0%) 부진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NLI 연구소)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1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월러 이사, 미네애플리스 연은 총재 및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
-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 중국 4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디스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등으로 7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 - WSI

(America Is Still Headed for a Soft Landing)

- 4월을 포함해 지난 14개월 동안 근원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 둔화가 지속.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아울러 4월 일자리 증가세 둔화, 산업 생산의 보합 등은 경기가 냉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매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하여 소비둔화 우려를 초래. 이에 경제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경우 연준은 금년 말 혹은 여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5/15일(수) 선물시장에서는 9월 FOMC까지 1회 이상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75.3%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전(65.1%)에 비해 높은 수치. 7월 인하 확률(34.9%)은 50%를 하회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중국의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 영향, 수입금 활용과 매입 주체가 중요 - 블룸버그

(What Is China's \$138 Billion Bond Bazooka Aiming At?)

- 당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 이에 시장은 당국이 국채 매각 수입금을 부동산 과잉 공급을 줄이는 데 사용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당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 다만 이는 결과적으로 수요를 촉진시켜 부동산 부문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이번 매각에 소규모 지역은행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 최근 장기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미 충분한 예금을 보유한 이들 은행이 초장기 특별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경우 낮은 수익률과 듀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는 만일의 경우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

■ 유럽의 對중국 무역정책, 미국과 같은 관세 강화 방식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Tariffs against America)

-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데, 이는 자국 제조업체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의도. 과거 유럽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제한하여 역내 기업을 보호
- 그러나 전기차 관세 부과는 친환경 기술의 투입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이 위축될 소지. 이에 당국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답습보다는 중국산 수입품을 활용하여 생산 확대와 시장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

■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투자자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 - Financial Times**

(Investors should not tear up their playbooks over geopolitical risks)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지정학적 압박에 직면.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이와 연관된 대중영합주의나 공급망 우려 등이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증폭. 최근의 이와 같은 여건에서 일부에서는 경제 펜더멘탈보다 지정학적 전개가 더욱 중요시되는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가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 다만 여전히 투자자나 정책입안자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 아울러 미중갈등 고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낙관 전망보다는 경계심 유지가 바람직

■ **미국의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조기 금리인하의 장애물로 작용 - 블룸버그**

(The Inflation Battle Is Far From Over)

■ **미국 물가상승 압력 완화, 현 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 - 블룸버그**

(Cooler Inflation Tells Fed That Rates Are High En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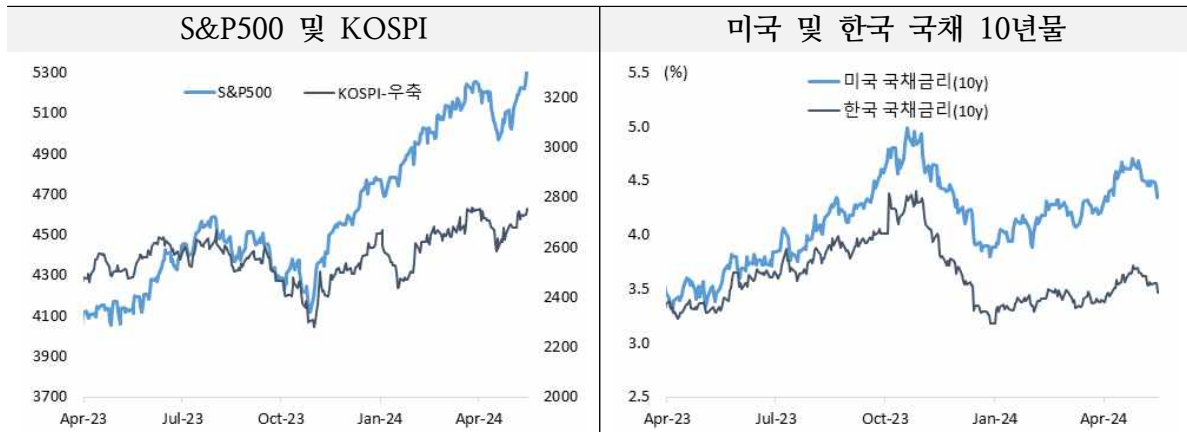
■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한 중국, 규제 완화 통한 해결 필요 - Financial Times**

(China must learn from Japan's 'lost decades')

■ **미국의 對중국 관세인상, 중국 의존도 높은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초래 - Reuters**

(As US hikes China tariffs, imports soar from China-reliant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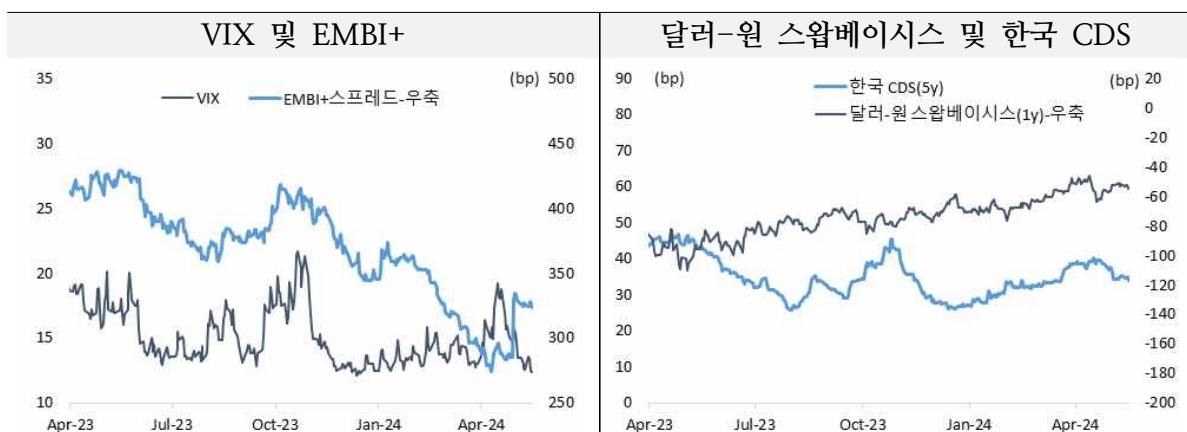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